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의 자주독립에 대한 견해 분석

홍 금 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합병후 비밀결사운동과 독립군운동, 애국문화계몽운동으로 부단히 힘을 축적하여온 우리 민족은 이 암흑의 시대, 수탈의 시대를 그대로 감수할수가 없어 분연히 쫓기한것이다.》

(《김일성전집》 제95권 36페이지)

19세기말~20세기초 우리 나라에서는 애국적지식인들에 의하여 민족주의운동의 한 고리로서 사람들속에서 반일애국정신을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민족적자각을 높여주기 위한 애국문화계몽운동이 진행되였다.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은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독립을 고수하는것이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던 시기 우리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족주의사상들을 제기하였다.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의 민족주의사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자주독립에 대한 견해이다.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의 자주독립에 대한 견해에서 주목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일제가 우리 나라에서 저지른 범죄적만행을 예리하게 폭로규탄한것이다.

일제는 1894년 우리 나라에서 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저들의 거류민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조선에 기여든 후 독점적지배를 실현할 목적으로 청일전쟁을 도발하여 봉건중국 세력을 밀어낸 다음 또다시 로일전쟁을 도발하여 짜리로씨야세력을 밀어냈다.

일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나라에 대한 군사적강점과 식민지예속화책동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갔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다음 력사에 류례없는 식민지적폭압과 약탈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하였다.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리익을 옹호해나선 민족주의자들이였다. 그런것만큼 일제에 의하여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 자주권과 존엄을 무참히 짓밟히고있는것을 결코 앉아서 보고만 있지 않았다.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은 한결같이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왔으며 우리 인민의 사소한 반일적요소에 대하여서도 무력으로 탄압하고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는 일제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략인하였다. 그리고 언론출판활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으로 일제의 죄행을 날날이 까밝히였다.

그들은 《조선독립》과 《령토보존》, 《동양평화》를 위한다는 미명밑에 일제가 침략적이며 예측적인 각종 조약들을 날조해낸데 대하여 그것이 우리 인민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이였다고 주장하였다.

안중근은 《일본은 로씨야와 전쟁을 시작하면서 선전포고문에서 〈조선독립〉이요, 〈동양평화〉요 하고 떠들어댔지만 오늘에 와서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5조약, 7조약 등을 날조한 후 국권을 장악하고 국왕을 폐위시키고 군대를 해산시켰다.》(《안웅칠력사》 6페이지)라고 하였다.

그는 철도, 광산, 산림, 토지를 모조리 강탈하고 군용지로 만들어버린데 대하여 항거해나선 의병들을 《폭도》라고 하면서 야수적으로 탄압한 일제의 죄행을 단죄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무장을 들고 침략자들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폭도》인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영토를 강탈하고 사람들을 참혹하게 살육하는자들이 폭도라고 하면서 일제의 행위는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이라고 하였다.

리기는 일제가 불법적으로 날조해낸 조약들에서 《조선독립》이니 《령토보존》이니 하였지만 사실상 그것은 우리 나라를 강점하기 위한데 목적이 있다고 폭로하였다.

리준은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에게 일제가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력적인 위협공갈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해낸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는 《저 간악무도한 일본은 룡해군 100만의 무력으로 압박하여 우리 나라의 정치, 경제, 풍속, 제도, 법률을 함부로 파괴하고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형편은 날로 국권이 상실되고있다. 이대로 나간다면 몇년을 지나지 못하여 우리 나라는 멸망하고말것이다.》(《리준전》 100페이지)라고 하였다.

신채호는 정론 《조선혁명선언》에서 일제를 《우리 나라의 국호를 없애고 우리의 국권을 빼앗으며 우리의 생존적필요조건까지도 모두 박탈한 파렴치한 놈들》이라고 하였다. 그는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고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일제가 해놓은것이란 조선을 하나의 대감옥, 인간살육장소로 만든것밖에 없다고 하였다.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은 특히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침략정책실현의 원흉인 이또놈의 죄행을 만천하에 폭로하였다.

안중근은 이또놈의 죄악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15가지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까밝힌 다음 《조선민족이 만약 이자를 죽여버리지 않으면 조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것이다.》(《안중근전》 8페이지)라고 하였다.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는 마지막순간에 동료들과 친척들에게 《저 왜놈들이 우리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기때문에 내가 이또놈을 격살시킨것은 나라를 위한 응당한 일이다.》(우와 같은 책)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로운 행동을 정당화하였다.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의 반일애국사상은 우리 나라를 침략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권을 유린하고 조선민족을 완전히 멸살시키려는 일제에 대한 증오심의 발현이며 그것은 정의감이 강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감정의 분출이었다.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의 자주독립에 대한 견해에서 주목되는것은 다음으로 외세의존을 반대하고 민족자체의 힘으로 일제와 맞서 싸울데 대하여 강조한것이였다.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은 봉건통치배들의 사대주의로 하여 국력이 약화되고 국권이 상실된 엄연한 현실을 직접 목격하면서 자기의 힘을 키우는 길만이 민족적독립을 이룩하는 길이라는것을 인정하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우리 나라가 일제의 예속밑에 놓이게 된 조건에서 국권을 되찾고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다른 나라들을 믿고 그에 의지할것이 아니라 자체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은 일제와 반드시 싸워이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모두가 떨쳐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뜻을 이룰수 있다는 확신으로부터 출발하여 일치하게 자체의 힘을 발휘할것을 강조하였다. 그들은 자주독립의 권리를 잃은 나라는 나라라고 말할수 없다고 하였으며 자강, 자립하지 않으면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벗어날수 없다고 하였다.

박은식은 자력에 대하여 두가지로 해석하였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지니고있는 애국심, 불굴의 투쟁정신이며 2천만이 하나와 같이 힘을 합쳐 일제에게 대항하는것이였다.

그는 일제에 의하여 1904년에 침략적인 《한일의정서》가 강요되고 1905년에 《을사5조약》이 날조된것을 계기로 우리 인민의 독립운동이 하루도 중단되지 않은데 대하여 그리고 이 과정에 수천수만의 의병들과 련사들이 독립투쟁에 몸을 바치고 희생된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는 우리 민족이 남녀로소 할것없이 모두 들고일어나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싸우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은 마땅히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 결코 외부세력에 의거하여서는 안된다.》(《한국독립운동지혈사》 결론)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일제가 우리 나라를 일시 강점하였지만 결코 오래갈수 없다고 하였으며 독립의 날이 온다는것을 확신하였다.

안중근은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만일 한차례의 싸움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2차, 3차 지어는 10차까지도 백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투쟁하며 한두해사이에 성공하지 못하면 10년, 100년을 두고서라도 싸울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만일 자기 대에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대에, 그때도 이루지 못하면 손자대까지도 투쟁을 벌려 나라의 독립을 회복할것을 열렬히 주장하였다.(《안중근전》 11페이지)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은 지구상에 믿고 의지할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으며 오직 자기 민족, 자기 동포만이 믿을수 있다고 하였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우리 인민의 민족정신이 매우 강하여 다른 민족에게 쉽게 동화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오랜 력사적기간 쌓이고쌓인 원한으로 하여 우리 민족과 일제가 절대로 융합될수 없다고 하였다.

리준은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자손들이 죄인들처럼 생활하게 될것인즉 이것을 생각해볼 때 일순간도 일본도 용서할수 없는 일이다. 저 간악한 왜놈과 조정의 간신들은 반드시 분쇄되어야 한다.》(《리준전》 10페이지)라고 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가 비록 약소국가라 하더라도 4천년의 력사를 가진 나라이고 2천만의 인구가 있는것만큼 일본의 노예가 될수 없으며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최후의 순간까지, 마지막 한사람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우와 같은 책 398페이지)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은 일제가 아무리 총칼을 휘두르며 탄압을 가한다 하더라도 전체 인민이 다같이 항거해나서게 되면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낼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일제가 오늘은 비록 강해보이지만 반드시 패망하고야말것이며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은 반드시 승리하여 나라의 독립이 이룩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의 이러한 견해는 당시 일제의 침략과 략탈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우려는 우리 인민의 기상을 반영한것으로서 그것은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야말 의지의 파시로 되였다.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의 자주독립에 대한 견해는 당시의 조건에서 사람들을 일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으로 적극 고무추동하는데 긍정적인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성을 나타내었다.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은 나라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자면 참다운 인민의 수령을 모시고 수령의 령도를 받아야 하며 투쟁의 앞길을 뚜렷이 밝혀주

는 옳바른 지도사상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옳바른 지도사상이 없이는 간고한 투쟁의 길을 헤쳐나갈수 없으며 우여곡절과 쓰라린 실패를 면할수 없다.

그들은 일제를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여러가지 학회단체들을 조직하고 교육과 언론출판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민족적자각을 높여주기 위한 문화계몽운동이 노는 역할에 대해서는 강조하였으나 총칼을 들고 달려드는 원쑤들과는 무장으로 맞서야 한다는것을 옳게 리해하지 못하였다.

일제가 방대한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하고 극악한 폭압정치를 실시하면서 인민들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마저 박탈하고있을뿐아니라 저들의 식민지 지배에 저촉되는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단체들과 반일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고있던 조건에서 애국문화계몽운동과 같은 민족주의운동으로써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

무장한 적을 때려부시고 나라와 민족을 해방하는 유일한 길은 무장투쟁을 벌리는 데 있다.

물론 일부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속에서 무장투쟁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일제와의 무력항쟁을 벌릴것을 주장하였지만 옳바른 투쟁전략과 전술, 구체적인 투쟁방도에 대해서는 제기하지 못하였다.

애국문화계몽운동가들의 자주독립에 대한 견해는 비록 제한성을 가지고있지만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한 진보적인 사상이었다.